



그림1 <반본환원(返本還源, 근본으로 돌아가라)>, 전남 조계산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 벽화

계획없이 찾아간 전남 조계산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심우도 벽화를 따라 한발 한발 옮겨가다가 멈추어 서게 된 것은 '반본환원(返本還源, 근본으로 돌아가라)'의 장면이었습니다.(그림1)

返本還源(返本還源)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간 공력이 헛된 것임을 爭如直下若盲龜 처러리 바로 눈멀고 귀 먹은 만 못하니 庵中不見庵前物 암자에 앉아 암자 앞 풍경을 보지 않아도 水自茫茫花自紅 물은 저절로 흐르고 꽃은 저절로 붉은 것을 근원으로 돌아가라? 연속되는 시리즈 벽화 장면의 주된 등장인물 목동과 소가 사라져버리고, 문득 물 흐르고 꽃 피는 자연의 한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

원이란 바로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흐르는 자연, 청정무구 참 자아(眞我 또는 自性)의 상태. 그렇다면 앞 장면의 목동과 소의 숨바꼭질, 팽팽한 줄다리기, 길들이는 고군분투는 모두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인위적 또는 인공적 행위가 되는군요. '최상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上善若水)'라는 노자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무언가 성취하려는 욕심에 정신없이 아등바등 일에 파묻혀 쫓기던 지난 6년간의 해외 유학생활 중, 어느 날 문득 제친 '돌아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력은 쌓이고 이력서를 장식할 한 줄 한 줄들이 늘어 삶이 더 화려하게 포장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거창한 것, 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향해 재촉하여 나아갈수록 거꾸로 마음은 이상하게도 거칠어지고 행복감은 반

근원으로 돌아가라



불화 속의 명장면 (22)

송광사 심우도(壽牛圖) 벽화 '반본환원(返本還源)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德力富吉郎 작, 일본 교토 법륜사 소장

비해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산중(山中)'이라는 시의 한 구절 '약초 캐다 어느새 길을 잃었지, 천개의 봉우리 낙엽 덮인 속...'에서처럼, 정신없이 약초 캐는 것에 몰두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깊은 첩첩 산중, 결국 망연자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잃은 마당에 손에 가득 움켜쥔 약초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적 속세적 가치만 따라 움직였던 거짓 자아에 부림을 당해, 진정한 자아(眞我)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버렸나 봅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라는 뜻을 가진 '심우도송(壽牛圖頌)의 본래 명칭은 '소를 길들이다'라는 의미의 '목우도송(牧牛圖

가 있습니다.

곽암 선사(郭岩)의 찬술자라도 잘 알려져 있는 원오극근(圓悟克勤)과 그의 동문인 대수원정(大隨元淨)의 법통을 이은 제자입니다. 이 심우도는 <벽암록>이 집필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것으로, 선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 일종의 선 수행 가이드 역할을 하였습다.

이 심우도송의 열 단계를 보자면 다음과



그림2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 송광사 심우도 벽화

은 자아와의 고군분투. 성공한 듯 치기심에 득의양양하다가도 다시 나락이다.→⑤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채찍과 고삐로 단단히 다스리자, 거친 검은 소는 순한 흰 소로 변해간다.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청정한 하얀 마음이 자리 잡는다.

굳은 의지와 지루한 인내가 필요한 단계, 계속 버티는 것만이 살 길이다.→⑥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완전히 길들이는 소를 타고 한적하게 피리를 불며 돌아온다.(그림4) 긴장과 고투는 사라지고 고요한 평정심이 찾아와 피리소리 또한 깊고 은은하

랐다(吾喪我)' 자아라고 착각했던 거짓 자아(小我)에서 소자아(小自我)를 찾고 나아가 더 큰 대자아(大自我)로, 큰 깨달음(大悟)의 경지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즉, '마침내 나는 없다(究竟無我)' <금강경 제17> ⑥반본환원(返本還源) 근원으로 돌아가다: '하늘의 흰소 소리(장자:제물론)'가 들려온다. 대자아의 호흡소리가 들리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눈앞에서 물결친다. ⑥입진수수(入塵垂手 다시 세상 속으로):저자거리로 나가 세상에 손을 내민다.(그림3) 이제 사람을 사랑(慈悲心, 大慈心)하는 것만 남았다. 제대로 돌아오기 위한, 귀가를 위한 즐거움을 했다.

여기에서 뛰쳐나온 소는 욕망을 가진 주체로서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컨트롤하려는 목동은 이성적 자아(眞我)지요. 이 심우도는, 나에게 의해 또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자아, 육체적 욕망 또는 타인의 가치에 부림을 당하는 타



그림3 <입진수수(入塵垂手, 다시 세상 속으로)> 송광사 심우도 벽화

인(他由人)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자유인(自由人)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석가모니의 출가와 수행, 다시 증생 교화를 위한 위대한 귀가의 순서를 고스란히 밟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오온(五蘊)을 가진 육체적 존재자(五蘊身)를 지향하는 정신을 동시에 가진 어떤 수 없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바로 이 양자, 욕망을 가진 현재적 자아와 신을 지향하는 진정한 자아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현자는 말씀하시어.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곽암 선사의 '심우도송' 서 유래, 선종과 함께 유행 소는 욕망을 지닌 자아, 목동은 이성적 자아 상징 타유인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자유인 표현

頌)입니다. 열 단계로 나누어 그려졌기에 '심우도송(牛牛圖頌)'이라고도 불립니다. 참선 수행자의 수행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아 길들이는 과정에 비유해 그림(圖)과 시(頌)로 도해한 이러한 저자는, 선종의 유행과 더불어 다양한 버전이 유행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중국 북송대 청거호승(淸居皓昇) 선사의 '목우도송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10장' 유백(惟白) 선사의 '목우8장' 등 많은 선사들이 이 형식을 빌어 참선의 수행단계를 알기 쉽게 제시하였는데, 본 송광사 벽화에 그려진 그림과 계승은 남송 초기의 곽암(郭庵) 선사의 '심우도송(牛牛圖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①심우(壽牛) 소를 찾다:목동이 고삐만 든 채 달아난 소를 찾아 나서서 초발심(初發心)의 단계, 무언가 찾아야겠다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이것저것 도모해보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힘은 다하고 다만 막막하기만 하다.→②견우(見牛) 소를 발견하다:소의 자취를 발견한 목동, 견성(見性)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단계. 무언가 희망이 어렴풋이 보이고 방향이 잡히는 듯하다.→③견우(見牛) 소를 보다:목동이 멀리 있는 소를 본다, 피나는 노력 끝에 인본의 단계에 들어서다. 이전 세상이 내 편인 듯 아름다워 보인다.→④득우(得牛) 소를 붙잡다:소를 잡긴 잡았으나 여간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다.(그림2) 험겨

역학 개인지도

-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저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후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범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정해년 설맞이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황인산차(黃印散茶)
 50,000원(100g)
 · 원산지: 멩해
 · 진가: 1990년



감급 홍인원차(1990년제품)
 320,000원 → 250,000원(1편)
 차의 소개: 홍인보이원차는 차정이 크고 알차고 중기가 포만하고 색은 밤홍색이고 차면에는 유광이 차면에는 밝은빛을 띄고 전하고, 탄향 혹은 야생 장나무향을 풍긴다. 잎의 아래부분은 부드럽고 신선할 뿐 아니라, 사용한 것은 구식압착제조라는 고대의 제조공예로 어떤것도 배급원형의 병차형태를 하고 있다

7532청병(7532靑靑)
 700,000원 → 350,000원(1편)
 · 원산지: 멩해
 차의 소개: 멩해의 어린잎으로 건강보관이 잘되어 기세가 비범하며 우아하고 내림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극 유희성을 지닌 아름다운 차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장은 금황색이고 맛은 진하며 향기는 천연적인 것과 같아 입에 넣으면 부드러운 맛을 낸다.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중점!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인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이 적어 뛰어난 에너지가 가진 것입니다.

■수원원 : 서영모이